

### 중국대륙 시리즈 제3편 **유공도의 화장실**



글. 홍하상  
/MBC 다큐멘터리 작가/

중국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이 향후 어떻게 나올 것인가'이다. 경제가 최고 상승세 이르는 2015-25년 경, 중국은 우리에게 무얼 요구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 누구를 택할 것인가!



## 올해는 한중 수교 10주년

8월24일은 한중수교 10주년 기념일이다. 꼭 10년전 바로 이날 한국과 중국은 오랜 대립관계를 깨고 다시 수교했다. 1910년 한국이 일본에 합병되고 나서 다시 정식외교 관계가 수립된 것이니 82년만의 일이다. 목하 한국의 TV 방송사 3사는 <한중수교 10주년 기념>다큐멘터리를 여러 편 준비해서 방송 중이다.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선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 때문이다. 아시아 경제의 중심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이동했다. 일본은 91년 이후 거품경제가 깨지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실업률도 사상 최고에 이른다. 반면에 중국은 홍콩, 마카오를 반환 받으면서 육일

웨이하이시에 위치한 상림대(商港大厦)의 외경

### 약 력

MBC 다큐멘터리 작가, 한국화장실문화협회 전문위원  
MBC다큐멘터리 270여편, MBC 방송대상 작가상 수상  
저 서 : 일본뒷골목 옛보기, '프랑스 뒷골목 이야기',  
'지구촌 뒷골목 음식 한 그릇',  
'카리스마 vs 카리스마',  
'중국을 움직이는 10인의 CEO'  
소 설 : '외인부대원 표레앙'

승천의 기세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일본의 마쓰시다, 도시바, 파나소닉 등 대가전사들은 일본의 공장들의 최소한 절반 이상을 중국으로 이전시켰다. 인건비가 싸고, 시장이 넓기 때문이며,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한국의 대기업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대기업도 중국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미 10만개 이상의 기업이 중국에 공장을 세웠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이 향후 어떻게 나올 것인가'이다. 경제가 최고 상승세 이르는 2015-25년 경, 중국은 우리에게 무얼 요구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미 그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한중수교 10주년을 기념한 심포지움이 서역의 우루무치에서 열렸다. 한국의 대사와 과거 주중 대사를 지냈던 분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중국 측도 한국관계 외교관이나 주한 대사를 지냈던 인사들이 참석했다.

청일전쟁에 대해 심포지엄하던  
학자들의 사진일에서



회의 말미에 중국 측 인사들은 한국을 성토했다.  
'너희 한국은 무조건 미국 편을 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재미없을 줄알라는 것이 그 골자였다.  
섬뜩한 공갈이었다.  
그것도 술자리가 아니고, 맨 정신에 회의용 탁자를 손  
바닥으로 내리치며 한 말이다.  
이제 개발 도상에 있는 중국의 관리들이 그러하니, 항  
후 더욱 국력이 커지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 점이 무척 염려스럽다.

## 눈부신 발전의 웨이하이 시

나그네는 산둥성(山東省)의 웨이하이(威海)시에 들어섰다.  
우리나라의 인천과 마주보고 있는 도시, 웨이하이.  
새로 지은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고, 거리의 가로수  
들이 참 푸르다.  
바닷바람이 상쾌하다.  
웨이하이시는 한중 수교 이후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연안도시이다.  
한국의 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진출해있고, 한국의 옷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백화점도 여럿이다.  
한국의 옷은 보파리상들에 의해 이곳에 도착한 후 요녕  
성과 연변자치주, 흑룡강성의 동북3성과 심지어는 내몽  
고 지역까지 들어간다.  
말하자면 웨이하이시는 한국상품의 전초기지이다.  
년간 거래되는 금액도 1천억원에 이르고, 이 덕분에 웨  
이하이시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25%에 이른다. 한마  
디로 돈이 도는 곳이다.  
시내 곳곳에는 한국 상품을 취급한다는 간판들이 즐비

하고, 한국 식당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심지어  
는 한국의 헬스클럽도 눈에 띈다.  
중국에 왔다는 기분이 들지 않을 정도이다.  
한국의류를 주로 취급하고 있는 시내중심 가의 (商港大  
廈)에 들어갔다.  
지상 14층의 이 매머드상가에는 과연 한국의 옷 일색이  
다. 건물의 간판에 <한국정품>이라고 쓰여있다.  
실내에는 한국의 여성리뷰에서부터 핸드백, 악세사리  
등 모두 한국제 일색이다.  
우리 나라에서 만든 물건이지만, 색깔이나 디자인은 우  
리와 다르다. 이곳 사람들의 취향에 맞췄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여기뿐이 아니라 산둥성의 칭다오, 웨이하  
이, 엔타이 등이 거의 같다.  
우리는 산둥성을 지렛대로 경기도 상품의 수출진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 청일전쟁의 무대, 유공도(劉公島)

다음 날 나그네는 웨이하이시에서 황해바다 쪽으로 15  
분 떨어진 유공도엘 갔다.  
유공도는 라오닝성(요녕성)의 여순시와 함께 중국 최대  
의 군사항구이다.  
1894년 청일전쟁 때, 청국의 함대가 황해로 발진했던 곳  
이 유공도이다. 나그네는 유공도엘 꼭 한 번 가보고 싶  
었다. 청일전쟁에 대해서 10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공도에 내리니, 시장판이다.  
섬 인근의 바다에서 잡아온 해산물로 난전을 펴고 있  
다. 이제는 중국 최대의 해군기지가 아니라 경치가 좋  
은 관광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유공도에는 곳곳에 중국의 군함기지가 있다.



유공도 해안가의 생선요리 가게들



유공도에 근무하는 수병들



정원함의 대구경포 앞에서



유공도의 역사 박물관

과연 거리에는 중국의 수병들이 대열을 맞춰 행진하는 모습도 보이고, 수병들의 막사도 보인다. 민간인에게 개방되는 곳은 유공도의 해안의 일부이다.

1894년 청국의 북양함대 사령관은 리홍장이었다. 그는 북경과 그 인근의 성을 다스리는 직예총독이었고, 요즘으로 치면 중국의 총리쯤 되는 인물이다. 그는 당시 아시아 최대의 전함인 7335톤급의 정원파와 치원이라는 두 주력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 두 거함이 있는 한 중국의 바다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본의 해군력이눈에 띄게 증강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다.

그는 청나라의 실권자였던 서태후에게 청국의 해군력 증강을 건의했다.

권력에 눈이 멀은 서태후는 아랑곳없이 해군력 증강에 써야할 돈을 자신이 노후에 살 궁전인 이화원을 만드는 데 몽땅 써버렸다.

이화원은 수백만평에 달하는 궁전이다.

그 안엔 30만평에 달하는 인공연못도 있을 정도였다. 리홍장은 고민했다.

일본이 도전해올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조선반도를 먹기 위해서는 청국과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했다. 배후세력인 청국을 쓰러뜨리지 않고서는 한반도 병합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약이빠진 일본수뇌부는 청국의 함대에 대해서 조사했다. 1878년, 그러니까 청일전쟁이 발발하기 16년 전에 이미 오카와마다지라는 해군 대령을 청국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청국에 파견했다.

그는 청국에서 연수를 한 것이 아니라 청국의 해군력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당시 청국의 북양함대는 정원, 치원 외에 22척의 전함을 가지고 있었고 총 톤수는 3만4466톤이었다. 반면에 일본

은 12척에 13800톤

에 불과했다. 숫적으로는 형편없는 열세였다.

그러나 청국의 주력함인 정원파와 치원파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함은 허우대만 멀쩡했지 속도가 느려진 고철덩어리라는 것을 알아챘다. 오카와마다지라는 청국과의 전쟁에 승산이 있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전쟁에 돌입했다.

첫 해전이 벌어진 곳은 충남 아산 앞 바다였다. 전쟁은 청국과 일본이 하는데 우리는 장소까지 빌려준 것이다. 청국은 일본이 예상한대로 정원파와 치원파를 앞장세워 한판 승부에 나섰다. 그러나 결과는 무참했다.

청국의 주력함은 초전에 모조리 박살났다.

청국의 주력함 정원파와 치원파는 14.5노트의 속도인데 비해 일본의 주력함들은 18.5노트였다.

일본함대는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청국함대의 후미를 공격했고, 청국 함대는 초전에 괴멸됐다.

청일전쟁에서 청국이 일본에 지자 유공도 함대 사령관이었던 정여창은 그 며칠 후 전쟁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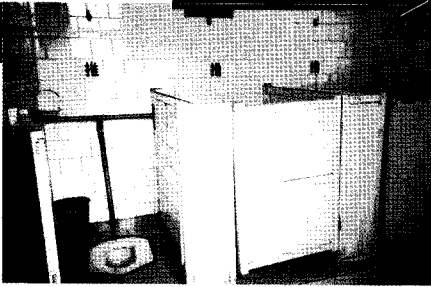
그후 청국은 치욕적인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었고, 전비는 물론이고 막대한 보상금을 일본에 주었고, 조선에 대한 종주권도 일본에 넘겼다. 그때 청국의 회담대표도 바로 리홍장이었다.

## 역사박물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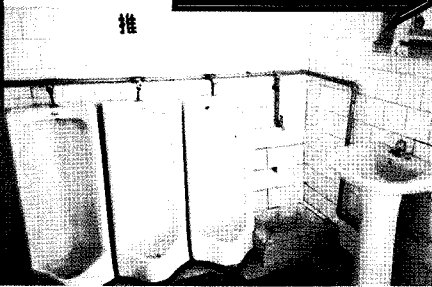
유공도는 바로 그 청국 함대의 발진기지.

유공도의 역사박물관에 들어가니 북양함대 사령관인 리홍장이 수병들을 도열하는 장면을 마네킨으로 실제의

유공도의 공중화장실 내부



유공도의 공중화장실 내부



유공도의 공중화장실 외경



모습과 똑같이 제작해 놓았다. 그들은 거기에 청국의 수병이 일본군의 총칼에 죽어가는 처절한 장면도 만들어 놓았다. 가슴이 섬했다. 오늘날 중국은 100년 전에 일본에게 당한 역사의 그 장면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잇기는커녕 실제 모습 그대로 마케팅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당시에 참전했던 정원과 치원함의 대구경포도 그대로 전시해놓고 있다. 실물을 보니 과연 거함이다. 청일전쟁이 지난 지 108년. 이제 경제의 중심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다. 중국은 과거에 일본에게 당한 그 복수를 절치부심, 언젠가는 갚아주겠다는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 그것이 총칼을 든 전쟁이 될지, 아니면 경제전쟁이 될지는 모른다. 2015년. 중국은 한반도에 대고 너화는 이제 누구를 택할 것인가를 물어 올 것이다. 과거 조선시대 때처럼 청국을 종주국으로 모실 것인지를 물어오게 될 것이다. 그걸 거부하게 되면 다시 충남 앞 바다에서 새로운 해전을 벌일지도 모른 것이다. 지난 6월 우무부처에서 있었던 한중 10주년 기념 포럼에서 중국관리가 책상을 탕탕, 내리치며 한국 관리들에게 물은 것은 바로 그것이다. 누구를 택할 것인가. 바로 그것인 것이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다. 14억의 인구가 있다. 다만 기술만이 뒤떨어질 뿐이다. 그러나 그 기술도 불과 몇 년 안에는 한국을 따라잡는다. 첨단 반도체 기술과 휴대전화 기술만이 한국이 앞서있을 뿐이다. 그 격차는 5-6년이다. 그 5-6년 후가 두려운 것이다.

## 유공도의 화장실

유공도엔 매 30분 간격으로 관광선이 운항된다. 배 한편에 약 150명 정도를 내려놓으니 하루 16회에

2400명 정도가 유공도에 오는 셈이다. 관광객은 거의 100%가 중국인이다. 그들이 화장실을 한 번 이상 사용할테니까 화장실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역사박물관에 안에는 물론 화장실이 있다. 그러나 그곳은 1인당 60위안(9천원)이라는 비싼 입장료를 받는다. 중국 관광객들은 돈을 받지 않는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것이다. 공중 화장실이 있는 곳은 모두 4곳이다. 하나는 여객터미널 안에, 다른 두곳은 해안가에 있는 공중 화장실, 마지막 한곳은 유공도 함대 사령관인 정여창의 숙소. 해안가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갔다. 수병들이 대열을 지어 화장실앞 거리를 씩씩하게 행진하고 있다. 중국이 그토록 치욕을 못잊어 하는 유공도의 공중화장실은 어떤 모습일까. 들어가 보니 여기는 전근대이다. 우리나라의 70년대 수준이다. 변기에 서서 불일을 보면서 청일전쟁의 패배에 따른 중국의 절치부심은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의 화장실 수준과 비교하면 아직은 턱없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화장실 수준과 비교해도 턱없는 것이다. 반도체생산현장은 생리 중인 여사원의 근무를 금하고 있다. 공중에 미세한 철분이 날아다니기 때문이다. 미세한 철분은 반도체 제품의 불량으로 바로 연결된다. 유공도의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그 손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런 찻찻한 마인드로 첨단 제품을 만들기엔 아직 정신수양이 부족하다. 소변을 보면서 아직은 우리가 많이 앞서있다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른 중국이니 우리는 진실로 한국의 장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